# ‘지지부진’ 율촌 2산단 개발 청신호

**◇819만㎡ 매립지에 기간산업·물류 복합 클러스터 조성**=광양항 율촌지구 3준설토 매립지는 2017년까지 334만㎡, 2020년 이후 485만㎡가 매립되면 여의도(윤중로 둑 안쪽 290만㎡)의 3배에 가까운 819만㎡의 부지가 된다. 해수부는 2025년까지 이곳을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신재생에너지 산업과 항만 물류기능이 복합된 클러스터로 개발한다.

율촌매립지는 광양만권에서 유일하게 기존 산단과 인접한 대규모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항로와도 가까워 원자재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매립비를 뺀 사업비 16조원은 민자로 조달된다. 해수부는 항만법에 규정된 항만재개발 사업 방식을 적용해 율촌매립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묘도 준설토 매립지 312만㎡에는 신소재산업과 복합에너지 물류·발전시설이 집적된 신성장산단을 2029년까지 조성한다. 올해 사업계획 수립을 마치고 내년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가며 사업비 6조원은 대부분 민자로 조달한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국회에 계류된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이 제정되면 컨테이너부두 일부와 중마일반부두 등 광양항 유휴항만시설을 융복합형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 기업생산활동에 제공할 방침이다. 낡아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낙포 석유화학부두(1974년 완공)를 재건설하고 1979년과 1988년에 지어진 중흥부두와 포스코 내 제품부두의 현대화와 여수산단 석유화학부두 증설도 추진한다.

**◇컨테이너부두를 자동차 부두로, 정비·도색업체 유치**=해수부는 광양항 3-2단계 컨테이너부두 4선석을 자동차 전용부두로 전환한다. 광양항 자동차 환적 화물이 2009년 8만대에서 지난해 81만대로 10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126만대로 지난해보다 56%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해수부는 광양항을 자동차 환적 허브로 키우고자 현재 국적선에만 허용되는 자동차 연안운송을 외국적선에도 허용한다. 또 서측 항만배후단지 193만㎡에는 점검·정비·세차·도색 등 자동차 환적 관련 업체를 유치한다. 이렇게 되면 제3국에서 중고차를 광양항 배후단지에서 정비·재조립해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식, 국내외 신차를 들여와 검사·왁싱하고 제3국에 보내는 방식 등이 가능할 것으로 해수부는 내다봤다.

**◇24열 크레인 3기 추가…암초 제거하고 항로 준설**=광양항의 24열 크레인은 2~3년안에 4기로 늘어난다. 내년도 해수부 예산에는 광양항에 24열 크레인을 3기 추가하기 위한 예산 108억원이 편성됐다. 최대 접안능력이 1만8000TEU급인 광양항은 이 같은 초대형선박의 하역을 위한 24열 크레인이 1기에 불과해 그간 어려움을 겪었다. 해수부는 대형선박 입출항에 위협 요소인 광양항 입구 특정해역 암초를 없애는 데 2928억원, 율촌산단 전면항로 등 항로를 준설하는 데 225억원을 투입한다. 또 광양항이 컨테이너 환적기지로 자립할 수 있는 물동량을 300만TEU로 잡고 이를 달성할 때까지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등 항만시설사용료 면제를 연장한다. 광양항에서 처리한 물량을 기준으로 선사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앞으로 환적물량을 더 가져올 수 있는 선사에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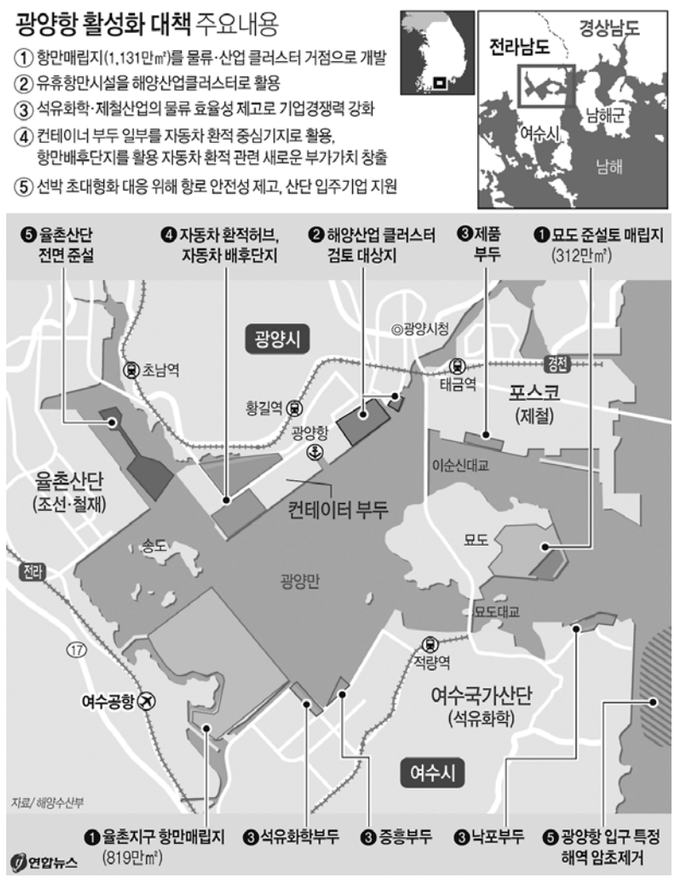
아울러 2880억원을 들여 광양항에서 급유·도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들을 수용하는 여수신북항을 개발하고 상업·주거·업무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2종 배후단지 29만㎡도 내년 상반기 사업자를 공모해 개발·공급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광양항 ‘동북아 자동차 환적 허브’로 키운다

컨테이너 크레인 등 기반시설 미흡과 배후산업단지 성장 둔화, 정부 및 민간 투자 정체 등으로 위기에 처한 광양항을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항이자 동북아시아 자동차 환적 중심기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투자 예산의 대부분이 민간자본이어서 해양수산부의 예상대로 민자가 유치될 지 여부가 계획 성공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 ‘여의도 3배’ 매립지에 에너지 산업·물류 복합 클러스터
### 투자 예산 대부분이 민간 자본…24조2천억원 유치 관건



독거노인에게 갈 선물주머니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회원들이 8일 지사내 회관식당에서 칫솔·치약 등 생필품과 방한조끼를 넣은 사랑의 선물주머니를 만들고 있다. 회원들이 만든 선물 주머니 300세트는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된다. /최현배기자 choi@

##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개정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목사·신부·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공포안은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공포 절차를 밟아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2018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연합뉴스

## 한국, 내년 UN 인권이사회 의장

국제사회 인권 논의의 중심적 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의장직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맡게 됐다.

우리나라는 7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내년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최경림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의장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각종 회의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인권이사회와 그 전신인 인권위원회의 의장직에 선출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최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5년 전 태국이 한 차례 수임한 적이 있다. /연합뉴스

## 해남 ‘한눈에 반한 쌀’ 독일인도 반하겠네

### 교포 업체, 옥천농협에 제의
### 대행사, 밥맛 보고 바로 계약

해남 옥천농협 ‘한눈에 반한 쌀’이 독일 수출길에 오른다.

전남도는 10일 “독일 교포가 운영하는 유통업체에서 옥천농협에 수출을 직접 제의해 ‘한눈에 반한 쌀’의 독일 수출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옥천농협은 제의를 받자 독일 한인 유통업체에 수출하는 국내 대행업체에 시식용 쌀을 전달했고, ‘한눈에 반한 쌀’로 밥을 지어 먹어 본 국내 수출 대행업체 대표가 즉각 수출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수출 선적이 성사됐다.

‘한눈에 반한 쌀’은 농식품부가 지난 2003년부터 주최한 전국 고품질 쌀 평가 12대 브랜드쌀에 9회 선정됐다.

특히 2006년, 2007년, 2009년 3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밥맛과 품질에서 전국 최고 쌀로 자리매김해 수도권 등에 마니아층이 두텁게 형성됐다.

이 때문에 옥천농협은 이번 독일 수출 외에도 올해 바이어의 요청으로 영국에 5t을 수출했다. 최근에는 중국 쌀 수출 가공공장으로 1차 선정돼 오는 26일 중국 검역단의 실사를 앞두고 있어, 최종 선정되면 중국으로의 쌀 수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박경곤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해남 옥천농협의 쌀 수출은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생산한 전남쌀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남쌀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 전남지역본부, 수출 대행업체, 생산자 단체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 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1면 ‘소방관이 그린 연탄꽃’에서 계속

이번 전시에서는 세월호를 소재로 한 작품도 선보인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에 4차례 파견되며 학생들의 시신을 수습한 경험이 있었다.

박씨는 정식으로 미술을 배운 적은 없다. 작품은 플러스펜으로 그린다. 하얀 종이에 미리 스케치를 한 다음 검은색으로 채우며 배경을 그리는 것이다.

“잉크에 젖은 종이를 드라이기나 햇볕으로 말려가며 조금씩 그리기를 반복하죠. 작품 하나 완성하는데 보통 2일이 걸리고 플러스펜은 5자루 정도를 써요.”

작품 제작방법을 설명하던 그는 겉옷 안주머니에서 플러스펜 3자루를 꺼내 보여줬다. 언제 어디서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항상 가지고 다녀야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

“앞으로는 그림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좀 더 나은 작품을 통해 요즘 세대들에게 연탄의 따뜻함을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가 어릴 적엔 연탄이 엄마이자 아버지처럼 따뜻한 존재였죠. 부디 연탄처럼 따뜻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문의 062-676-8986.